

부품 · 소재 포럼 11월 7-8일 서울 개최

산업자원부는 부품 · 소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부품 · 소재 발전에 대한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민 · 관의 바람직한 역할 재조명 등을 목적으로 <부품 · 소재 국제포럼 2007>을 2007년 11월 7-8일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호텔 비스타홀에서 개최한다.

행사에는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과 오영호 제1차관을 비롯해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연구소장, 폴 로머 스탠포드대 교수, 데이브 파워 J.D. Power 회장, 황승진 스탠포드대 교수,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컴퓨터 창업자, 마사키 기타가와 일본 NIMS 부소장 등 해외석학과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, 정준양 POSCO 사장, 임형규 삼성종합기술원장, 이귀로 LG전자기술원장, 성장모 효성기술원장, 조동성 서울대 교수,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,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, 김춘호 건국대 부총장 등 국내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.

행사의 첫날인 11월7일 오전에는 <초저가 혁명과 부품 · 소재>라는 주제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기조강연과 국내 전문가와의 토론을 시작으로, 오후에는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첨단소재기업의 생생한 성공사례 발표 및 토의가 있으며 11월8일 오전에는 황승진 교수의 <글로벌 경쟁에서의 성공전략> 특별강연에 이어 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폴로머 교수의 <미래성장의 조건 - 창조적 기술혁신 전략>이라는 주제강연과 토론, 오후에는 애플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의 애플 성공신화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.

아울러 행사의 부대행사로써 첫날 석탑산업훈장에 최병운 성보P&T 이사 등 부품 · 소재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30명에 대한 <2006년 부품 · 소재기술상>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품 · 소재 전시관이 운영될 계획이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0/31>